

50년 일군 도량 1억 1천만원 때문에...

포천 금룡사 30년 재판 승소, 토지매입금 없어 '발동동'

경기도 포천 금주산 금룡사(金龍寺). 새벽 4시 어둠이 가시지 않은 산길을 한 노보살이 오른다. 계곡 따라 굽이진 돌계단을 한참 오르니 절벽에 매달리듯 서있는 대웅전이 보인다. 그 위로는 미륵부처님이 도량을 굽어보고 있다. 법당에 들어간 노보살은 예불 후 기도정진에 든다.

"경기도 포천군 영중면 금주리 산 23번지..." 금룡사 주소를 읊조리는 노보살은 누구며, 무슨 사연으로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는 것일까?

금룡사는 1865년 이순신 장군 후손인 지담 스님이 위태로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해 창건한 호국도량이다. 지담 스님이 가난과 병고와 전쟁이 없어질 때까지 기도하겠다고 세운 금룡사는 작은 암자에 불과했다. 기도처로 명맥만 유지하던 이 곳이 도량의 위엄을 갖춘 것은 지혜 스님과 무심행 보살이 불사를 시작한 1970년부터다.

스님과 보살의 원력에 관세음보살님도 감응했는지 미륵불 점안식을 봉행한 1970년 7월 8일 밤 9시와 2005년 7월 8일 밤 9시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났다. 밤하늘을 환하게 비추는 방광을 신봉로 오인한 마을 사람들이 신고해 소방차가 출동하는 해

프닝도 있었다.

지혜 스님과 무심행 보살은 한집 한집 흠집을 저 나르며, 금주산 계곡을 따라 계단을 내고, 대웅전을 짓고, 미륵석불을 세웠다. 암벽을 파내 감실에 1000불도 모셨다. 석굴암 불사가 한창일 때 경봉 스님이 "금룡사 석굴암 불사가 완전히 끝나야 남북 통일을 이룬다"고 말할 정도였다. 지혜 스님이 입적한 2007년까지 금룡사 불사는 계속됐다.

오늘도 변함없이 법당에서 정진 중인 노보살은 금룡사 불사를 이룬 무심행 보살(76)이다.

"50여년 일군 도량이 1억 1100만원이 없어 도량이 사라지게 됐소." 눈물을 글썽이는 노보살이 한숨 끝에 입을 연다.

"불사가 한창이던 1980년대부터 빨갱이 돈으로 불사한다는 모함에 스님도 나도 군부에 끌려가 고초를 겪었소. 형사고발로도 안되자 1990년대부터는 토지소유권을 둘러싸고 민사소송이 걸렸고..." 수십년 설움의 회한이 북받쳐서일까? 무심행 보살은 말을 잊지 못했다.

"서류를 위조한 이들이 토지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벌일을 다 겪었소. 소송에 이길만 했을 때 소유권을 넘

겨 다른 사람하고 다시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한 것은 우습고, 인터넷에 매물·경매로 올랐으며 사람들이 줄지어 찾아온 것은 예사요. 법당 철거하겠다고 강패들이 몇 트럭씩 찾아온 것도 버렸소. 신도라며 드셔보라고 간넨 떡, 등산객이 먹어보라며 주고 간 밤에 독이 들어 죽을 뻔도 했소." 애써 말을 잇는 무심행 보살의 음성은 떨렸어도 30년 고난 속에 도량을 수호했다는 자부심만은 역력했다.

"대법원 승소까지 받았으니 이제는 조용히 불사를 마무리하고 포교에만 힘쓰고 싶소."

대법원은 2004년 소유권을 주장하며 금룡사를 허물고 가톨릭 기도원을 짓겠다는 문모씨에게 금룡사로 부터 1억 1100만원을 받고 2500평의 등기를 넘기라는 판결을 내렸다.(사건번호 2003다66448)

대법원 판결로 금룡사는 철거를 면했지만 다음이 문제였다. 삼보장재를 아끼겠다고 순수 법전을 살피며 재판정에 섰던 30여년이지만, 줄이든 송사와 병고에 시달린 무심행 보살에게 1억여원이 있을 리가 없다.

무심행 보살은 1980년대, 사찰음식이 주목받지 못하던 때부터 제주 스님이던 어머니의 권유로 포천



무심행 보살(원안)의 원력으로 지켜낸 포천 금룡사가 토지 매입금을 마련하지 못해 애매무매로 우고 있다.

됐다. "빈자 만들어 팔면서 뇌종양도 앓고 있었지." 보살이 빈자를 돕기 위해 금룡사를 짓게 된 것은 아니었다. 인근 8사단 군법당 관음사, 5군단 군법당 금강사 등 불사 외에 낙산사 불사 등 전국의 크고 작은 불사라면 수고를 아끼지 않고 시주했다.

"반평생 넘게 금룡사를 일궈는데 정작 불사를 마무리할 인연은 따로 있나보요. 누가 도우려고 부처님이 기다리는 것인지 궁금해. 어서 인연을 만나게 해달라고 밤낮없이 목탁치고, 목 놓아 관세음보살을 불렀지만 아직 때가 아닌가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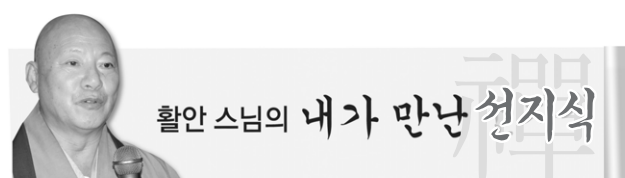
스님이던 어머니의 권유로 포천

금룡사를 찾아 불사를 수행삼고 살아온 무심행 보살의 80여년 삶. 부처님 품에서 진력한 50년 중 30여년은 마장으로 송사에 시달린 회한의 시절이었다. 금룡사에 평생을 바친 노보살의 원력은 꽃피울 수 있을까?

"사람들이 절을 찾아 부처님께 위안 받으려 하지 부처님 지키려 하지 않아."

포천 금룡사의 사연은 1억 1100만원의 많지도 적지도 않은 금액이나 무심행 보살의 말처럼 한국불교의 현실 같아 안타까움이 더하다.(031) 533-4405 · 4425

주동성 기자 cetana@buddhapia.com



<6>탄허 대종사

"그렇게 하려면 다시는 절에 오지 말라. 남편부처님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부처님께 마지를 올려서 무슨 덕을 보겠다고?"

이 말을 들은 막내 아기가 어머니께 사죄했다.

"어머님께서는 8년 동안 저를 위해 불공을 드려 주셨는데, 저는 오늘 아버지를 위해 불공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집에 들어가 두꺼비 저 금통을 털어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차려

놓고 대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퇴근하고 돌아오시는 아버지를 맞아 아랫목에 앉게 했다. 그리고는 큰상을 바치고 삼배를 드리니 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한편 거사는 크게 참회하였다. "큰스님, 큰스님을 몰라 뵈고 구업 지은 것을 참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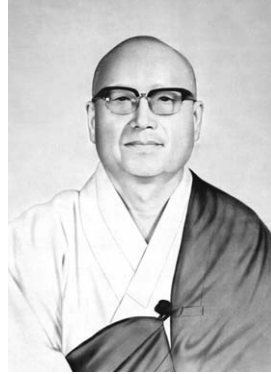
"그래 아내부처, 자식부처 잘 섬기고 살게."

이렇게 탄허 스님은 자상하시면서도 호랑하여 각성, 무비, 통광, 성일 등 눈 푸른 남자들과 동건, 문환, 찬우 등 기라성 같은 대학자들을 배출하여 한국 불교문화에 큰 빛이 되었다.

탄허 스님은 이와 같이 선·교에 능통한 대불교화자일뿐 아니라 유교와 도교에까지 그 깊이 헤아릴 수 없어 일본, 대만

에 까지 출강하시어 동양문화의 일대 보물로 알려져 있다. 동국대학교 교수였던 허 양주동 박사는 그의 제자 몇 사람과 함께 1주일 동안 <장자(莊子)> 강의를 듣고,

"만약 장자가



“아내·자식 부처처럼 섬겨라”

"이게 무슨 짓이냐?" 하고 영문을 몰라 안절부절 하였다.

사실대로 이야기 하니 아버지께서는 매우 결연하여 하시며,

"너희들에게 불교를 그렇게 가르치는 스님이 계신다면 나도 가서 빌러라. 나는 네 엄마가 스님 애인이 생겨가지고 매년 불공을 빙계하고 그분을 빌러 절에 가는 줄 알았는데... 그렇다면 나도 한번 가서 꼭 뵈고 싶구나. 그분이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이라 하드나? 내 다음 달 월급타서 대종공양을 한번 크게 하리라."

"만두와 국수라 하였습니다." 얼마 후 만두와 국수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왔는지, 그 국수공양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던 스님이 활짝 게워 내온 방안이 국수 천지가 된 일이 있었다.

다시 태어나서 자기 강의를 한다 하더라도 스님을 능가하지는 못할 것이다."

하였다. 80년대 초 미국 하와이에 가서 스님의 친필(親筆)을 신처럼 모셔 놓고 부처님 받들 듯 하는 것을 보았다. 과연 이 시대의 일과 이치가 능통하고, 종통(宗通) 마음의 이치를 요달해 진리를 깨달음, 설통(說通) 법문을 자유자재로 하는 언변을 엿본 사람이 탄허 스님을 뵈고 또 있을까 생각해 보았다.

"글도 잘 하시고, 글씨도 잘 쓰시고 말도 잘 하시고, 행(行)도 원만하여 만인의 사랑을 받은 스님이며, 오늘은 또 구루매 인경을 끼시고, 어디를 가셔서 누구를 교화하고 계십니까."

대불련 전국 총동문회 23~24일 동화사서 봉행

대불련총동문회(회장 전보삼)는 8월 23~24일 대구 동화사에서 '2008년 대불련 전국 총동문대회'를 개최한다. 개인의 수행을 점검하고 한국 불교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할 이번 대회는 23일 오후 2시 30분 갖바위 순례와 입재식(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 법문), 축제(한마당(야외공연장) 순으로 진행된다.

24일에는 동화사 승가대학장 지운 스님의 특강, 장현갑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의 '불교적 심리치료' 특강, 회향식 및 결의문 채택 등으로 진행된다. (011)503-2060

김성우 기자

'현대불교' 후원은 포교에 동참하는 길!

태평성대 발원 담은 '충담사 안민가비' 제막

경주 흥도공원에서 8월 15일 봉행

'왕은 왕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할지언면 나라가 태평하리라.'

(사)한국차인연합회(회장 박권홍)와 불국사(주지 성타) 공동 주최로 건국60주년을 기념해 안민가비 제막기념식이 열렸다. 8월 15일 경주 보문단지 내 흥도공원과 경주교육

문화회관에서 100여 명의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막식은 백상승 경북 경주시장의 초헌(初獻)을 시작으로 엄숙히 진행됐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안민가(安民歌)'는 통일신라 승려 충담사(忠談師) 경덕왕에게 바친 향가다. 해마다 3월 3일과 9월 9일에 차를 달여



충담사 안민가비.

미륵보살에게 헌다한 충담사 스님이 다례를 마치고 지은 것으로 전해진다. (02)734-5866

가연숙 기자

한국방송작가협, JTS에 비지원 성금 전달

한국방송작가협회(이사장 김옥영)는 8월 8일 북한식량지원을 위한 성금 1500만원을 국제구호단체 JTS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김옥영 이사장은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에 대한 얘기를 듣고 굶어죽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에 작가들의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번 성금 모금에는 한국방송작가협회 소속 작가 121명이 참가했

며, 탈북여성과 남한 남자의 결혼 이야기를 다룬 KBS 라디오 시트콤 '남북녀' 팀도 모금에 동참했다. 또 북한 지원을 위한 정부예산 1% 책정, 식량20만톤 긴급지원을 위한 서명운동도 함께 이뤄졌다.

노덕현 기자

정토회, 단기출가 모집 9월 1일부터 100일간

정토회 행자원(원장 유수)이 제5기 100일 출가 참가자를 모집한다. 9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자들은 1만배 정진, 새벽예불, 명상, 참회기도, 발우공양, 포살법회, 생태농사 등을 경험한다. 이밖에도 깨달음의 장, 나눔의 장, 일체의 장 등 마음수련과정을 통해 자기변화를 하게 된다.

'100일 출가'를 지도하는 유수 스님은 "이번 단기출가가 수행은 내면의 문제를 확연히 들여다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새로운 삶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추천했다.

신청마감은 8월 20일. (054)571-6030, www.jungto.org.

김성우 기자

“(假稱)梵魚寺 和合 僧伽會” 發起文

- 修行과 衆生救濟의 中心인 禪刹大本山 梵魚寺가 持續的인 葛藤과 混亂에 흔들리고, 近者에는 司法機關과 言論까지 동원되어 四部大衆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 이는 門中別로 分裂하고 오로지 小集團의 權益만 주장하고 있는 梵魚寺 僧伽의 現實에 基因한 것으로, 修行者로서 本然의 姿勢를 忘却하고 私利私慾이 앞선 탓이라 할 것 입니다.
- 昨今の 內訌을 終熄하고 무너진 位階秩序를 바로 세워, 다시 梵魚寺가 修行과 衆生救濟의 中心이 될 수 있도록, 뜻 있는 스님들이 모여 “(假稱)梵魚寺 和合 僧伽會”를 結成하게 되었습니다.

“(假稱)梵魚寺 和合 僧伽會” 發起人 一同